

# <霧津紀行>에 나타난 近代性에 대한 陰陽論적 고찰

이 정 석\*

## 목 적

- I. 서론
- II. 陽의 공간 '서울'과 陰의 공간 '霧津'
- III. 陰氣와의 교호와 生氣로의 전환
- IV. 相契的 近代化
- V. 결론

## I. 서론

陰陽論은 우주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과 생성소멸을 음양의 消長·變轉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sup>1)</sup> 이에 따르면 우주의 생성원리와 자연현상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온갖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본은 음양작용의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음과 양은 상호 대립적이며,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易經』 제5장 <繫辭傳>에는 “一陰一陽之謂道”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역이 존재의 본성을 하나의 대립체, 대립의 한 쌍으로 보며, 존재의 현상을 대립의 엇갈림, 대립의 역학관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sup>2)</sup> 그러나 자연계의 종자는 암수의 한 쌍으로 존재하며, 그 암수의 교류로써 생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인간의 운명은 음지와 양지에 내재하며, 그 음지와 양지의 엇

---

\*승실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정신문화연구원, 1991, 479쪽.

2) 정효구, 『현대시와 기호학』, 느티나무, 1989, 23쪽.

갈림에 따라 양지가 음지가 되기도 하고 음지가 양지가 되기도 한다. 윤리의 기준은 선악의 분별로 나타나되, 선과 악의 척도는 서로 상대적인 역학관계에 놓이기 마련이다. 결국 절대적인 대립의 지속은 존재하지 않으며, 음양의 작용 원리에 따라 그 대립체는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마련인 것이다.

한편 五行相雜說은 세계가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단일하지 않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sup>3)</sup> “소리가 하나라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색이 하나라면 문채가 있을 수 없으며, 맛이 하나라면 좋은 맛을 낼 수 없고, 사물이 하나라면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사백의 언급은 이러한 오행설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sup>4)</sup> 그리고 여러 가지 상이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야만 만사와 만물이 생겨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섯 가지 맛을 배합하여야만 음식이 입에 맞을 수 있고, 사지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야만 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육질이 조화되어야만 사람들에게 즐거운 청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세계는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 속에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 때문에 서로간의 차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존재양식이라고 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陰陽五行說은 우주만물에는 대립과 차이의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것의 존재로 말미암아 생성과 변화가 가능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대립과 차이의 부재는 곧 조화의 부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평정을 이루는 것”, 곧 상이한 성질이 배합되고 평형을 이루는 것이 ‘和’라는 사백의 사상은 대립의 조화에 의한 우주생성의 원리를 잘 보여준다.<sup>5)</sup> 그에게 ‘同’은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는 것”, 곧 동일한 사물의 중복이며, 그 철학적 함의는 무차별의 동일성 혹은 추상적 단순성의 동일함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和’의 철학적 함의는 차별을 가지는 것 사이의 평형 혹은 다양성의 통일이다. 그러므로 “조화야말로 실제로 사물을 낳는 근거이며, 완전히 동일하면 생산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백의 사상은 세계가 다양성의 통일이며, 사물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음양론에서도 홀로 있는 음(陰)은 살 수 없고(獨陰不成), 홀로 있는 양(陽)도 살 수 없으며(獨陽不

3) 궁철병, 「변증법적 모순관 형성의 논리적 과정-춘추전국시대 오행, 음양, 증화, 일양 범주에 대한 연구」,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381쪽.

4) 앞의 책, 405쪽.

5) 앞의 책, 394쪽.

生), 음과 양이 만나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주만물의 생성이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sup>6)</sup>

본고에서는 이 음양이론이 통시적 관점에서나 공시적 관점에서 문헌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 틀이라 전제하고, <霧津紀行>에 나타난 近代性의 문제를 규명하여 보기로 하겠다.

음양이론을 통해 근대성의 문제를 점검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을 근대성으로 보고 무엇을 전근대성으로 파악할 것이냐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근대성을 陽으로 전근대성은 陰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易經』의 <繫辭傳>에서는 “천지(天地)의 기운이 화합하여 만물이 순화(醇化)하고, 남녀의 정기가 화합하여 만물이 화생(化生)한다”고 말한다. 역에서 양성(陽性)과 음성(陰性)은 각각 男性 대 女性으로 분별된다.<sup>7)</sup> 그래서 양/음의 절대적 본성을 보면, 양성/음성은 각각 남성적/여성적인, 剛/柔, 動/靜, 明/暗에 내재하며, 이와 함께 陽氣/陰氣는 자연히 能動/受動, 外向/內向, 上昇/下降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陽位/陰位는 저절로 表/裏, 外/內, 上/下에 자리하게 된다.<sup>8)</sup> 즉 음이 고요함(靜)·소극성·퇴행성·유약함 등을 대표한다면, 양은 움직임(動)·적극성·진취성·강함 등을 대표한다.<sup>9)</sup> 따라서 陽이 남성적인 원리에 토대를 두고 외부로의 확대 지향적인 성향을 함유하고 있다면, 陰이 내향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양의 상반된 특성 때문에, 陰을 근대성으로 陽을 전근대성으로 위치 지을 수 있는 것이다.

## II. 陽의 공간 '서울'과 陰의 공간 '무진'

<무진기행>은 '서울'과 '무진', 즉 도시와 시골이 이분법적으로 분할된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두 대립적 공간은 서로 상반된 특성을 함유한 영역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서울'이 현실적 자아가 현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공간이라면, '무진'은 내면적 자아가 지향하는 과거의 편린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6) 전창선·어윤형, 『음양이 뭐지?』, 세기, 1994, 80쪽.

7) 정효구, 앞의 책, 22쪽.

8) 馮友蘭·더크보드, 강재륜 역, 『중국사상사』, 일신사, 1982; 위의 책, 22쪽 재인용.

9) 한규성·한필호 엮음, 『주역에 대한 46가지 질문과 대답』, 동녘, 1996, 36쪽.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공간의 상반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이 작품에 나타난 근대화의 양상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霧津’의 공간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그곳이 陰의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sup>10)</sup>

무엇보다 먼저, 무진을 음의 공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이곳이 水의 이미지로 뒤덮여 있다는 점일 것이다. 왜냐하면 陰은 남성적인 것, 능동성·더위·밝은·건조를 뜻하는 陽과는 달리 여성적인 것, 수동성·추위·어둠·습기를 뜻하기 때문이다.<sup>11)</sup> 주인공 희중으로 하여금 무진이 가까워졌음을 가장 먼저 의식하게 하는 것은 안개이다. 무진의 안개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존재하면서 외부적 공간으로부터 사람들을 고립시킨다. 무진은 안개뿐 아니라 비와 바다 등 水의 이미지가 중첩된 공간이다. 특히 이들 水의 이미지들은 하강과 죽음의 이미지를 동반하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 무진은 외부의 폭력이나 삶의 위기로부터 희중을 보호해주는 모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세 번에 걸친 그의 무진행은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출발이 필요할 때” 마다 행해졌다. 이는 무진행이 현실적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행해지는 일종의 자기 보호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게 한다. 현재의 무진행은 승진을 앞에 두고 “안색이 아주 나빠”진 것을 걱정한 아내와 장인의 권유에서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면 승진을 앞에 둔 과도한 긴장과 그를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로 승진시키기 위한 아내와 장인의 모사에

10) 김승옥, <무진기행>, 『김승옥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0, 126쪽.

11) 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481쪽.

대한 수치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의 공간인 '무진'에 대립되는 양의 공간으로서의 '서울'은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개인에게 진취적 투쟁과 팽팽한 긴장을 강요한다. 즉 양의 공간인 '서울'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양의 기질을 발산해야만 하는 곳이다. 그러나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요구함으로써, 음양이 균형을 이룬 상태를 지향하게 된다. 결국 회중의 무진행은 상호 보완적인 힘의 충전으로 변화·생성을 도모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무진에서 회중은 수면과 성적 결합을 통해 양기와 음기의 적절한 교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生氣 혹은 活氣를 되찾는다.<sup>12)</sup>

턱이 덜그럭거릴 정도로 몸에서 힘을 빼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긴장해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보다 피로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열려진 차창(車窓)으로 들어와서 나의 밖으로 드러난 살갓을 사정없이 간지럽히고 불어 가는 유월의 바람이 나를 반수면 상태로 끌어넣었기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을 수가 없었다. 바람은 무수히 작은 입자로 되어 있고, 그 입자들은 할 수 있는 한 욕심껏 수면제를 품고 있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sup>13)</sup>

무진행 버스 안에서의 반수면 상태에서 시작되어 무진 도착일의 낮잠, 무진

12) 서경덕은 자연현상의 다양한 변화와 온갖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본을 음과 양의 작용으로 해석하였다. 살구나무의 일화는 이러한 음양론의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준다. 서경덕이 화담에서 생활하고 있을 무렵, 집안 마당에 살구나무 한 구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봄이 거의 지나도록 이상하게 싹이 돋을 기미가 없었다. 집 식구들은 아마도 죽지 않았겠느냐면서 잘라버리자는 의견도 나왔던 모양이다. 그때 서경덕은 하인을 시켜 나무 밑 언저리를 그 뿌리가 드러 날 정도로 파헤치게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뿌리고 거적을 덮어 놓게 하였다. 그러자 며칠 안 가서 나무는 새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집 사람들은 모두들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기할 것이 없다. 모든 초목이 자라나는 데에는 그곳의 흙이 제각기 알맞게 덮혀야 한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를 보면 흙이 너무 많이 덮혀 있었다. 아침 저녁로 마당을 쓸면서 그곳에 흙을 쓸어 모았기 때문이다. 흙이 두텁게 쌓이니 氣가 뿌리에 이르지 못하고 살아나기 어렵지 않을 수 없었다. 흙을 헤쳐서 성글게 해 주면 陽氣가 통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이치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서경덕의 해명에 의하면 이 살구나무의 희생은 요컨대 지상의 陽氣가 지하의 陰氣와 원활한 교호작용을 하게 해 줌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남영, 『제12편 조선중기의 성리학설(I) - 제1장 서경덕의 철학사상』,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중권, 동명사, 1987, 168~171쪽 참조).

13) 김승욱, 앞의 책, 127쪽.

도착 당일의 불면 끝의 잠, 인숙과 정사한 날 음주 후의 숙면까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수면은 이승에서 실현되는 가사상태로서 서울이 현실적인 활동이 진행되는 능동적 활동의 공간임에 반해, 무진이 긴장과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안식의 공간이자 靜의 공간임을 뜻한다. 따라서 희중은 음의 공간인 무진에서 生氣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생기를 얻고자 하는 희중의 바램은 성적 합일의 욕구로 나타난다. 그래서 희중은 술집여자의 시체를 “향하여 이상스레 정욕이 끓어오름”을 느끼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숙과 쉽게 정사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의 상태에서 음과의 교호작용을 지향하는 희중과 유사하게, 수로 충만한 음의 공간인 무진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끊임없이 양의 상태를 지향한다. 희중의 중학교 동창인 조는 돈 많은 과부와 결혼한 희중을 무척 부러워하면서, 자신의 출세를 보장해 줄 재력 있는 여자를 찾는다. 때문에 인숙에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녀의 뒷조사를 한 후 그녀가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여교사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성기(性器) 하나를 밀천으로 해서 시집가 보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하찮은 여자로 치부한다. 이러한 조의 태도에는 여자를 출세의 수단으로 사물화하는 속물성이 내재되어 있다.

하인숙도 움울하고 어두운 무진의 음적 분위기에 절망하고 양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졸업연주회에서 ‘어떤 개인날’을 불렀다고 하면서도 단지 심심하다는 이유로 속물이라고 생각하는 세무서직원들 앞에서 “무자비한 청승맞음”과 “높은 옥타브의 질규”가 포함되어 있고, “광녀(狂女)의 냉소”와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냄새”가 스며 있는 ‘목포의 눈물’을 애절하게 불러대는 여자이다. 희중은 그런 그녀에게서 간절하게 밝은 날을 갈구했던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고 짙은 연민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처음에 희중에게 부탁했던 말과 달리 자신은 서울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무진에의 잔류를 선택한다.

한편 음의 공간인 무진의 모태적 안온함에서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희중은 아내의 전보로 인해 갈등을 겪게 된다. 무진으로 향하던 길에 광주의 역에서 본 ‘미친 여자’가 버림받은 음의 공간으로서의 무진을 상징한다면, ‘전보’는 문명과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서울의 존재를 강하게 환기시킨다.

모든 것이 흔히 행자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 때문이라고 아내의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세월에 의하여 내 마음속에서 잊혀질 수 있다고 전보는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쳐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sup>14)</sup>

여기서 회중의 내면적 갈등은 서울이라는 양의 공간과 무진이라는 음의 공간에 대한 양가감정의 교차를 잘 보여준다. 서울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근대의 공간이다. 하지만 서울의 삶은 세속적인 권모술수와 생존경쟁의 압력이 지배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무진은 휴식과 평온을 가져다주는 모태적인 공간이면서, 근대화의 와중에서 버린 받은 소외와 단절의 공간이기도 하다. 회중은 그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심각한 갈등을 느끼다가, 무진을 버려 둔 채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다시 서울로 복귀한다. 여기서 회중이 느끼는 ‘부끄러움’의 감정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생기만을 얻고 음의 공간인 무진을 버려 둔 채 근대적 공간인 서울로 회귀하는 자신의 이기적 성향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무진-서울>로 이어지는 원점회귀적 구조는 무진이 근대화에 필요한 자양분만을 공급하고 버림받은 소외된 공간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 Ⅲ. 陰氣와의 교호와 生氣로의 전환

모든 서사텍스트는 동일한 상태를 지속하지 않으며, 반드시 상태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이다.<sup>15)</sup> 따라서 한 서사체가 결말에서 최초의 상황과 유사하게 종결된다 하더라도 최초의 상황과는 다른 상태나 지위 혹은 다른 관점의 개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말은 처음의 동일한 반복이 아니다.

14) 앞의 책, 152쪽.

15) Tzvetan Todorov, 신동욱 옮김,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131쪽.

<무진기행>은 원점회귀적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즉 <서울-무진-서울>의 여로는 양의 공간에서 일탈하여 음의 공간을 거쳐 다시 양의 공간으로 복귀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최초의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모든 텍스트는 상태의 변화를 겪게 마련임으로,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종결되고 있는 듯한 텍스트라도 서사의 전개과정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 상태변화의 양상을 세밀하게 파악해야만, 특정 텍스트가 서사의 심층적 차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전체적 의미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陰氣와 陽氣가 적절히 聚合하면 양기와 음기가 교호작용을 하여 생명에의 生氣 혹은 活氣를 얻고, 반대로 음양 二氣가 서로 떨어져 아무런 교호관계를 갖지 못할 때 그 생명체는 죽게 된다.<sup>16)</sup> 이러한 기철학적 입장에서 <무진기행>의 상태변화의 양상을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陽氣의 상태 - 陰氣와의 교호작용 - 生氣의 상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陽적 공간 서울을 떠나는 여로에서 시작되어 다시 서울로 회귀라는 도정에서 종결되는 서사적 구도는, 외면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내적 상태의 변모를 동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양기의 상태란 자기 확장적인 능동적인 힘만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상태이다. 달리 말하면, 양기가 충만한 상태란 세속적 현실에 적응하려는 욕망만이 극단적으로 도드라져, 자기 본래의 내면적 욕망을 상실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양기가 고양된 상태에서라야만 남성적 원리에 입각해서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서울이라는 근대적 현실에 적응해나갈 수 있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고 나의 청각이 문득 외부로 향하면 무자비하게 쏟아져들어오는 소음에 비틀거릴 때거나, 밤 늦게 신당동(新堂洞) 집 앞의 포장된 골목을 자동차로 올라갈 때, 나는 물이 가득한 강물이 흐르고 잔디로 덮인 방죽이 시오리 밖의 바닷가까지 뻗어나가고 있고 작은 숲이 있고 다리가 많고 골목이 많고 흙담이 많고 높은 포플러가 예뻐운 운동장을 가진 학교들이 있고 바닷가에서 주워온 까만 자갈이 깔린 들을 가진 사무소들이 있고 대로 만든 와상(臥床)이 밤거리에 나앉아 있는 시골을 생각했고

16) 이남영, 앞의 책, 185쪽.



그것은 무진이었다. 문득 한적이 그리울 때도 나는 무진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럴 때의 무진은 내가 관념 속에서 그리고 있는 어느 아늑한 장소 일 뿐이지 거기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sup>17)</sup>

위의 인용문에는 주인공 회중이 서울에서의 삶에 지칠 때면 떠올리곤 하는 무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서울이 부산하고 바쁜 삶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그려져 있다면, 무진은 한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서울에서 떠올리는 무진은 실제적 삶이 영위되는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 “관념 속에서 그리”는 무의식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는 양의 공간 서울에서의 삶이 음적 요소를 철저히 억압·배제하고, 오직 양기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양기가 스스로를 확장하면서 앞으로 가는 길은 근본적으로 음기로 변하여 되돌아 오는 길<sup>18)</sup>이기에, 음의 부재 속에 양만이 난무하는 상태는 필연적으로 음에 대한 갈망을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회중은 음의 공간 무진에서 음기와의 교호작용을 통해 생기를 회복하고 서울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진에서 음기와의 교호작용을 거쳐 생기를 회복하고 급히 서울로 상경하는 회중의 모습에는 한국적 근대화의 부정적 속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듯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sup>19)</sup>

회중은 근대라는 대타자의 이데올로기적 호명, 즉 아내의 전보를 받자마자 자신을 감싸안고 되살려준 무진을 뒤로 하고 서둘러 서울로 향한다. 위의 인용

17) 김승욱, 앞의 책, 128~129쪽.

18) 김영석, 『도의 시학』, 민음사, 1999, 259쪽.

19) 김승욱, 앞의 책, 152쪽.

문은 그 와중에서 잠시 갈등과 번민에 시달리는 회중의 내면풍경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무진이 근대화의 자양분을 공급하면서도 그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진 유형의 땅이라면, 인숙은 그러한 모태적 공간 무진을 표상하는 구체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회중의 편지는 자기 생존만을 모색하는 이기적 존재방식을 반성하고 상호 공존을 도모하려는 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금방 편지를 찢어버리고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서울로 떠나는 회중의 행태는, 결국 상호간의 발전과 상승을 도모하는 相反相生의 근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한쪽이 한쪽을 착취하고 폐기해 버리는 야만적 근대화의 실상은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무진기행>에 나타난 인물의 상태변화는 氣質을 변화시켜 本然之心을 회복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회중이 서울에서 주체적으로 속물적 삶의 방식을 타개해 나가기보다는 장인과 아내의 모사 속에서 물화된 현실과 타협하는 삶을 지속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기질은 인간의 육신과 그 육망의 뿌리이며, 기질의 변화란 이러한 기질을 配義與道한 浩然之氣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20)</sup> 그런데 이 작품에서 생기를 얻은 상태는 주체가 서울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이나 의지를 획득한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생기를 얻은 상태가 천만인이나 역사 앞에서도 不撓, 不屈, 不動, 不變하는 주체의 힘 혹은 의지를 확보하여 객체를 압도하는 浩然之氣를 갖춘 氣象<sup>21)</sup>의 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주체가 객체에 不動하고 나아가 객체를 압도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기상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sup>22)</sup>

이같은 인물의 존재 양태를 ‘低劣氣象’<sup>23)</sup>이라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로부터

20) 配義與道란 義에 짝하고 道와 동참한다는 뜻으로, 인간이 타고난 기질을 변화시키고 지양하여 浩然之氣로 승화하는 것이 참된 기질의 변화이다. 김길환, 「제13편 조선중기의 성리학설(II)-제4장 權諤의 철학사상」,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중권, 동명사, 1987. 352쪽.

21) 심호택, 「문학론에 나타난 氣의 類型體系試攷」, 『국어국문학』 22(제86호~제87호), 1982, 711~731쪽 참조.

22) 한승욱, 『한국전통비평론 탐구』, 승실대학교 출판부, 1995, 21쪽.

23) 심호택(앞의 책, 731쪽)은 기상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주체의 우위를 드러내는 용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기상이란 어휘로 표기된 일련의 용어체계를 세우기 위해 주체가 객체보다 약하고 저열한 상태인 저열기상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당대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주체의 반응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즉 그 속에는 주체를 압박하는 야만적 근대화의 압도적인 힘 앞에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굴복·순응할 수밖에 없던 당대 주체의 무기력과 고뇌가 담겨 있는 것이다.

#### IV. 相剋의 近代化

理氣 性命의 성리학적 명제를 구체적인 관계에서 體認하고 실천하는 데 역점을 둔 權認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王道의 具體哲學을 발전시켰다. 그는 자기의 利, 自家의 利, 自國의 利만을 추구하는 것은 霸道의 사고방식이고, 物我一體觀에 입각하여 成己 成物하고 立身 立人하여 自達 達人하는 것은 王道의 사고방식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孟子와 같이 공리주의를 霸道라 하여 철저하게 배격하였고, 왕도와 폐도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공과 私의 구별에 있다고 말하고 천하를 공된 사회로 만들어 仁을 구현하는 것은 王者의 心法이고, 한 몸의 私를 위해 사리를 추구하는 것은 霸者의 心이라 하였다.<sup>24)</sup>

陽의 공간 서울은 權認가 말하는 霸道の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배제되어 공간이다. 이러한 서울의 공간적 특성은 「서울 1964년 겨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에서 ‘안’은 혼자 두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낯선 사내를 여관방에 홀로 남겨둔다. 이처럼 서울이 철저하게 공리적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이라면, 무진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존속하는 공간이다. 때문에 회중은 무진에서 술집 여자의 시체조차 “아프긴 하지만 아끼지 않으면 안 될 내 몸의 일부처럼” 느끼고, 인숙에게서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무진은 서울의 삶이 요구하는 과도한 긴장에서 탈피하여 잠시 휴식을 얻는 공간일 뿐이다. 따라서 무진에 인숙을 버려둔 채, 서울로 떠난 회중이 다시 찾은 생기를 바탕으로 현실에 타협하면서 속물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음양론은 相生相剋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相生은 서로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존재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생겨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相剋은 상생의 반대적 개념으로,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24) 김길환, 앞의 책, 359쪽.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을 뜻한다.<sup>25)</sup> 상극의 관계는 비상도 잘 쓰면 명약이 되듯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sup>26)</sup> ‘무진’과 ‘서울’은 상생적 관계가 아니라 상극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상극적 관계가 서울에는 항상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무진에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음의 공간으로서의 무진은 양의 공간, 즉 근대화의 영역인 서울을 위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긍정성을 제공하고 소외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무진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성과 전통의 음적 공간은 서울이라는 양적 공간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을 공급하는 모태적 역할을 하고 쇠락한다. 따라서 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의 근대화는 양의 원리가 음의 원리를 압도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相剋적 근대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근대화는 한치의 문제제기도 허용치 않는 절대적 섭리이자, 회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로 당대의 사회성원을 압박했다. 억압적 국가권력은 근대화의 논리에 의해 모든 것을 정당화했고, 그 어떤 희생도 근대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전근대성은 근대화를 위해서 극복되고 사라져 버려야만 하는 대상으로 치부되곤 하였다. 따라서 우리에게 근대성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이 평정을 이루는 것”, 곧 상이한 성질이 배합되고 평형을 이루는 和<sup>27)</sup>의 논리가 아니라, 대립적인 것을 정복하고 포섭하여 동일한 것의 무한대적 확장만을 획책하는 무차별의 동일성으로 다가온다. 대립체의 정복과 착취에 기반한 근대화의 논리는 대립이 氣에서 생기지만 대립의 해소는 理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유양식<sup>28)</sup>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처음부터 윤리와 당위로서의 理가 개입할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는다.

별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나와 어느 별과 그리고 또 다른 별들 사이의  
안타까운 거리가, 과학책에서 배운 바로씨가 아니라, 마치 나의 눈이 점점

25) 전창선·어윤희, 앞의 책, 82쪽.

26) 박주현, 『알기 쉬운 음양오행』, 동학사, 1997, 215쪽.

27) 궁철병, 앞의 책, 394쪽.

28) 조동일, 「理氣哲學의 傳統과 國文學 理論의 새로운 방향」, 『한국문학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42~46쪽 참조.

정확해져 가고 있는 듯이 나의 시력에 뚜렷이 보여 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를 보는 데 흘러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순간 속에서 그대로 가슴이 터져 버리는 것 같았다. 왜 그렇게 못 견디어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있던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sup>29)</sup>

별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갈망의 가장 구체적인 상징”<sup>30)</sup>이다. 그 속에서는 현실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존재합일의 상태, 즉 내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분리되지 않은 세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그리고 희증과 별 사이에 놓인 “그 도달할 길 없는 거리”에는 자아의 욕망과 현실적 지반 사이의 화합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안타까운 절망이 배여 있다. 따라서 희증과 별 사이에 가로놓인 거리는 과거 음의 공간에서 느끼는 절망과 고립감의 표시이자, 현재 양의 공간에서 속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환멸과 수치심의 발로로 환원될 수 있다. 결국 과거/현재, 내면적 자아/사회적 자아, 무진/서울, 시골/도시, 음/양 등 일련의 대립항들은 동일자/타자의 대립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동일자는 이질적인 타자를 자신의 확장을 위해 억압하고 착취하게 된다.

陰적 공간과 陽적 공간의 대립으로 두 氣가 화합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무진기행>은 극복되고 사라져야만 할 대상으로 간주되던 전근대성이 근대성을 가능케 하는 토대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근대적 이데올로기는 전통적 음의 세계가 근대화를 위해 부정하고 단절해야만 하는 것으로 치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근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모태적 지반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한국의 근대화는 부정적인 상극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농촌, 전통, 동양적 사유를 해체하는 일련의 파괴적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 <무진기행>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만나 조화롭게 새로운 존재를 배태하는 相生的 近代化가 아닌 相剋的 近代化의 모습을 잘 포착해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9) 김승옥, 앞의 책, 140쪽.

30)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오늘의 작가총서 - 김승옥』, 민음사, 1980, 292쪽.

## V. 결론

지금까지 음양이론에 입각해서, <무진기행>을 대상으로 이 텍스트에 나타난 근대성의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그 논의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陽이 남성적인 원리에 토대를 두고 외부로의 확대 지향적인 성향을 함유하고 있다면, 陰이 내향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음양의 상반된 특성에 착안하여, 陰을 근대성으로 陽을 전근대성으로 상징한 후 이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에 적용해 보았다. <무진기행>은 '서울'과 '무진', 즉 도시와 시골이 이분법적으로 분할된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때 서울이 양의 공간의 특성을 함유하고 있다면 무진은 음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기에, 양의 공간 '서울'과 음의 공간 '무진'의 대립 체계를 통해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을 도출해 내려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무진기행>이 원점회귀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인물의 상태변화의 양상을 점검해 보았는데, 그것이 <陽氣의 상태 - 陰氣와의 교호작용 - 生氣의 상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인물의 존재 양태를 '低劣氣象'<sup>31)</sup>라 규정하고, 이를 주체를 압박하는 야만적 근대화의 압도적인 힘 앞에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굴복·순응할 수밖에 없던 당대 주체의 무기력과 고뇌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를 토대로 본고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적 근대화의 특성을 규명해 보았는데, 한국의 근대화는 부정적인 상극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농촌, 전통, 동양적 사유를 해체하는 일련의 파괴적 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무진기행>에 나타난 근대화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만나 조화롭게 새로운 존재를 배태하는 相生的 近代化가 아닌 相剋的 近代化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31) 심호택(앞의 책, 731쪽)은 기상이 주체와 객체의 관계에서 주체의 우위를 드러내는 용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상이란 어휘로 표기된 일련의 용어체계를 세우기 위해 주체가 객체보다 약하고 저열한 상태인 저열기상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기초자료

김승옥, <무진기행>, 『김승옥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0.

### \*국내논저

김영석, 『도의 시학』, 민음사, 1999.

박주현, 『알기 쉬운 음양오행』, 동학사, 1997.

심호택, 「문학론에 나타난 氣의 類型體系試放」, 『국어국문학』 22(제86호~제87호), 1982.

이정석, 「김승옥소설의 욕망구조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1995.

전창선·어윤형, 『음양이 뭐지?』, 세기, 1994.

정과리, 「유혹 그리고 공포」, 『오늘의 작가총서 - 김승옥』, 민음사, 1980.

정효구, 『현대시와 기호학』, 느티나무, 1989.

조동일, 「理氣哲學의 傳統과 國文學 理論의 새로운 방향」, 『한국문학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편찬부, 『민족문화대백과사전』 17, 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규성·한필호 엮음, 『주역에 대한 46가지 질문과 대답』, 동녘, 1996.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동명사, 1987.

한승옥, 『한국전통비평론 탐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5.

### \*국외논저

궁철병, 「변증법적 모순관 형성의 논리적 과정-춘추전국시대 오행, 음양, 중화, 일양 범주에 대한 연구」,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馮友蘭·더크보드, 강재륜 역, 『중국사상사』, 일신사, 1982.

Tzvetan Todorov, 신동욱 옮김,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 Abstract

### A Study of The Modernity Based on The Theory of Yin and Yang in *the Mu Jin Gi Heng*

Lee, Joung-Suk

We have considered the aspects of the modernity showed in *the Mu Jin Gi Heng* so far. Then we can summarize the process of the discussion as follows;

Provided that Yang contains the extension-oriented inclination depending on the principles of male, we can say that Yin holds the introversive and passive characteristics. Therefore considering the mutual contradiction between Yin and Yang we assumed Yin to be the modernity and Yang to be the pre-modernity and applied that to the concrete text analysis. 'Seoul' and 'Mu Jin'(霧津), that is to say, the city and the province divide *the Mu Jin Gi Heng* into two spatial parts. Supposed that 'Seoul'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of Yang, 'Mu Jin'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of Yin. So we tried to ob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odernization through confrontation between 'Seoul' and 'Mu Jin', namely Yang and Yin.

In conclusion We ascertained that The Korean modernization has been destroyed a rural community, tradition in relation of antagonism(相剋). That is to say, it is not modernization of conjugal harmony(相生的 近代化) but modernization of antipathy to each other(相生的 近代化) in *the Mu Jin Gi Heng*